

# '佛여우' 보러 가자

20일까지 광주극장서 '불어우 열전'

### 영원한 뮤즈부터 팜므파탈 매혹까지 프랑스 여배우들 만나며 추억속으로

'프랑스 대표 여배우를 만나다.'  
프랑스문화원과 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  
워크가 주최하는 '불어우 열전'이 오는 20일  
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.

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배우는 프  
랑스와 튀르피, 루이 말 등 세계의 거장들이  
사랑했던 잔느 모로부터 프랑스와 오종의  
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 
있는 루디빈 사니에르 등 신예까지 16명이  
다. 상영작은 모두 18편.

'거장 감독들의 영원한 뮤즈'로 불리는 잔  
느 모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는 프  
랑스와 튀르피 감독 작품으로 영화팬들이  
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'졸 앤  
짐'이다.

영화 개봉 당시 '악마는 브리짓트 바르도  
를 창조했다'라는 찬사를 받았던 로제 바딘  
감독의 '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'에서  
는 육감적인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의 20  
대 시절 연기를 만날 수 있다. 우아한 이미  
지로 알려진 '세기의 미인' 카트린느 드뇌브  
가 출연한 흥겨운 뮤지컬 '로슈포르의 숙녀  
들' 역시 놓쳐서는 안될 작품.

'까미유 끌로델'의 헤로인 이자벨 아자니  
는 신비로운 눈과 고혹적인 모습으로 한국  
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여배우다.

로망의 연인으로 분했던 '까미유 끌로델'  
에서는 사랑 때문에 불운했던 여성 예술가  
까미유 끌로델의 모습을 생생한 연기로 보  
여주며 빅토르 위고의 둘째딸로 재능있는  
작가였던 아델 위고의 이야기를 그린 '아델  
H 이야기'에서는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.

줄리엣 비노쉬 역시 한국 팬들의 사랑을  
 듬뿍 받고 있는 여배우. 이번 영화제에서는

그녀를 스타덤에 올렸던 레오 카락스 감독  
의 '퐁네프의 연인'이 관객들을 찾아간다.  
남자 주인공과 파리 퐁네프 다리 위에서 춤  
을 추던 장면은 영화팬들이 가슴 속에 깊이  
남아 있는 명장면중 하나다.

독특한 분위기의 엠마누엘 베아르의 대표  
작인 '프랑스 여인'과 '마리와 줄리앙 이야  
기', 칸느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수  
상한 이자벨 위페르의 명 연기를 감상할 수  
있는 '레이스 짜는 여인', 파니 에르담의 '마  
리아 칼라스'와 '이웃집 여인' 도 눈길을 가  
는 작품이다.

'비포 선 셋'의 사랑스러운 여배우 줄리  
델피의 작품으로는 '뉴욕에서 온 남자, 파  
리에서 온 여자'를 만날 수 있으며 샬롯 갱스  
부르의 '레망'도 상영된다. 그밖에 매혹적인  
외모로 사벌 향수 모델과 본드걸로도 활약  
했던 카롤 부케의 '육망의 모호한 대상' 등  
도 눈길을 끈다.

신진 여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도  
있다.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  
며 관객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루디  
빈 사니에르는 '우리의 릴리'로 관객들을 만  
나며 엠마누엘 드브의 '내 입술 위에'도 상  
영작 목록에 올라 있다.

그밖에 카트린느 드뇌브, 이자벨 위페르,  
엠마누엘 베아르 등 프랑스 여배우들의 총  
출동한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뮤지컬 영화  
'8명의 연인들'은 배우들을 한 화면에서 만  
날 수 소중한 영화다.

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(<http://cafe.naver.com/cinemagwangju>) 참조. 문  
의 062-224-5858.
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- 1 잔느 모로
- 2 이자벨 위페르
- 3 줄리 델피
- 4 베아트릭체 달
- 5 브리짓트 바르도
- 6 줄리엣 비노쉬
- 7 카트린느 드뇌브
- 8 이자벨 아자니

## 주목! 이영화

### '마다가스카 2'



## 아프리카의 모험

### 웃음·감동 만끽

지난 2005년 개봉, 흥행 대박을 터트  
렸던 '마다가스카'의 속편으로 한층 업  
그레이드된 기술력이 돋보이는 가족 애  
니메이션이다.

미지의 섬 마다가스카에 불시착했던  
사자 알렉스와 얼룩말 마티, 기린 멜만,  
하마 글로리아는 뉴욕 동물원으로 돌아  
가기 위해 펠리컨공대가 제작한 비행기  
에 오른다.

하지만 연료 부족으로 또 다시 야생의  
땅 아프리카에 불시착하고, 그 곳에서  
또 다른 모험을 벌이게 된다.

알렉스는 어릴적 헤어진 부모를 만나  
고, 하마 글로리아는 느끼한 하마 모토  
모토와 사랑에 빠진다. 또 네마리 악동  
펠리컨은 여전히 유쾌한 웃음을 전해주며  
소심한 기린 멜만은 오랫동안 숨겨온 사  
랑을 고백한다.

알렉스 역의 벤 스틸러, 알렉 볼드윈  
등 명배우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.  
아프리카의 푸른 하늘과 거대한 초원,  
수많은 동물들의 털 한올 한올까지 세심  
히 묘사한 장면들이 눈길을 끈다.

<전체 관람가>
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**'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'**  
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**국제보청기**

본점: 동구본동로123에 (062) 227-9940

총장점: 구본동로123에 (052) 227-9970

**세기보청기, 세계 속에 우뚝서다!**

대한민국 대표보청기 - 세기보청기

세기스타·세기보청기

1588-0420 / 02-22-11100

10312011-0308